





13. 勞傷에 甘寒之劑로 熱火를 瀉하고 甘溫之劑로 中氣를 調養해야한다고 주장한 醫家로 옳은 것은?

- ① 許俊  
② 朱丹溪  
③ 王肯堂  
④ 李東垣  
⑤ 張景岳

14. 다음 補法의 注意点 중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食餌보다는 藥物治療에 중점을 둔 치료적 개념이다.
- ② 病實·邪盛한 경우여도 補法은 항상 本 치료에 병행해 正氣의 손상을 막는 것이 좋다.
- ③ 四時의 氣候에 상응하도록 운용한다.
- ④ 여름철에 溫補之劑를 常用한다.
- ⑤ 補法을 쓸 경우 우선 환자의 陰陽, 體質을 고려한다.

15. vt D 過多症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腎虛                      ② 血虛  
③ 氣虛                      ④ 陽虛  
⑤ 脾虛

16. 黑豆의 煎汁을 복용하여 解毒 가능한 약물은?

- ① 川椒                      ② 半夏  
③ 天雄                    ④ 雄黃  
⑤ 麴毒

17. 子午年일 때 司天과 在泉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少陰君火 - 陽明燥金  
② 太陰濕土 - 太陽寒水  
③ 少陽相火 - 厥陰風木  
④ 陽明燥金 - 少陰君火  
⑤ 太陽寒水 - 太陰濕土



22. 氣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가. 眞氣는 元氣, 先天之氣라고도 하며 가장 근본이 되는 氣이다.  
 나. 宗氣는 眞氣에서 파생된 것으로 水穀之氣와 天氣가 합해 생성된 것이다.  
 다. 衛氣는 水穀之悍氣로 慄疾滑利하다.  
 라. 宗氣는 經脈이 氣血을 운행하게 하는 추진에너지이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3. 痰飲 懸飲 支飲 溢飲의 명칭 근거는

- ① 飲邪의 성질
  - ② 飲邪의 積聚量
  - ③ 飲邪의 停留部位
  - ④ 飲邪積聚의 원인
  - ⑤ 飲邪의 종류분별

24. 이것이 虛할 경우 不眠, 如人將捕之하며 精神意識과 思惟活動의 일부분으로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결여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 ① 中正之官 謀慮出焉
- ② 中精之府, 淸淨之府라고 불림
- ③ 奇恒之府이면서 傳化之府에 속한다.
- ④ 肝과 表裏관계고 肺와 相通관계이다.
- ⑤ 實하면 공포를 잘 느끼게 된다.

25. 水氣有餘하여, 土氣衰弱이 발생한다면 다음 중 어느 관계라 할 수 있는가?

- ① 制已所勝                      ② 侮所不勝  
③ 侮而乘之                    ④ 輕而侮之  
⑤ 답없음

26. 奇恒之腑의 주요 기능은?

- ① 行血氣  
② 藏精氣  
③ 傳化物  
④ 主生殖  
⑤ 實而不滿

27. 五臟, 六腑, 奇恒之腑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 ① 分布部位의不同                      ② 解剖形態의不同  
③ 機能特徵의不同                      ④ 陰陽屬性의不同  
⑤ 表裏聯絡의不同

28. 實證을 형성하는 病機는?

- ① 邪盛正衰  
② 邪盛正未衰  
③ 邪勝正負  
④ 邪去正衰  
⑤ 正邪兩虛

29. “治未病”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書籍은?

- ① <內經> ② <難經>  
③ <神農本草經> ④ <傷寒論>  
⑤ <金匱要略>

30. 다음 중 ‘格陰’의 本質은 무엇인가?

- ① 暑濕之邪過盛  
③ 溫熱之邪過盛  
⑤ 逼陰外越

31. 다음 중 津이 布散되지 않는 곳은?

- ① 皮膚                                                  ② 孔窺  
③ 肌肉                                                ④ 關節  
⑤ 血脈

32. 眩暈의 발생은 다음 중 어느 장부의 기능실조와 관계가 깊은가?

- ① 心肝脾                                  ② 肺脾腎  
③ 心肝腎                                ④ 肝脾腎  
⑤ 心脾腎

33. 다음은 <東醫寶鑑>의 원문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말을 漢字로 쓰시오

是以人之生者神也，形之托者（ ）也，若（ ）衰則形耗而欲長生者未之聞也。



40. 黃疸을 5種으로 분류한 최초의 학자는

① 張仲景

② 巢元方

③ 孫思邈

④ 羅天益

⑤ 劉河間

동의M스쿨